

# 국내에서의 ‘외로운 늑대’(Lone Wolf) 테러리스트 발생 가능성에 관한 연구: IS 가담 ‘김 모’군의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Lone Wolf’ Terrorists in Korea: Focusing on IS Defector Student Kim’s On-Line Behavior

윤봉한(Bonghan Youn)\*, 이상진(Sangjin Lee)\*\*, 임종인(Jongin Lim)\*\*\*

### 초 록

9/11사건 이후 인터넷이 테러활동을 위한 주요 공간으로 등장하였고, ‘외로운 늑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테러 도구를 구입하고, 급진의식화에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5년 1월 발생한 김 모 군의 이슬람국가(IS) 가담은 우리사회가 더 이상 ‘테러청정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경각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외로운 늑대’ 테러리스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다양한 선행 논문과 담당 수사관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외로운 늑대 사이버 진화모델’을 개발하고, ‘김 군’의 ‘외로운 늑대’ 진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다문화 사회화·국제 이동인구 증가·소외계층 급증·이념갈등 심화 등 우리 사회의 외로운 늑대 동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외로운 늑대’의 추가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에서 ‘외로운 늑대’ 테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 ABSTRACT

Since 9/11 attack, internet has become a major space for terrorist activities and also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spot of lone wolf terrorists for acquiring tools and radicalization. The accident of student Kim’s defection to IS (Islamic state) in January 2015 told us that Korea is not any more “terrorism clearance area” and led us to look closely into the possibility of lone wolf terrorist.

In this paper, I developed a “lone wolf cyber evolution model” using various materials collected by preceding papers and interviewing investigators and terrorism experts in Korea. I analyze Kim’s radicalization process using this model. And I picked and closely looked over some facilitating factors of lone wolf such as multi-cultural socialization, increase of international migrants, expansion alienation hierarchy and ideological conflicts deepening and predicted the possibility of lone wolf. Finally, this paper presents some effective policy measurements against lone wolf terrorism in Korea.

**키워드** : 테러리즘, 외로운 늑대, 사이버공간, 소셜 미디어, 급진 의식화, 다문화 사회  
Terrorism, Lone Wolf, Cyberspace, Social Media, Radicalization, Multi-Cultural Society

\* First Author,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unacorea@daum.net)

\*\* Corresponding Author,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sangjin@korea.ac.kr)

\*\*\* Co-Author,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jilim@korea.ac.kr)

Received: 2015-09-09, Review completed: 2015-09-30, Accepted: 2015-10-22

## 1. 서론

9/11 사건 이후 테러조직 활동의 새로운 경향은 기존의 조직 또는 단체 중심의 활동에서 인터넷과 발전된 통신환경을 이용한 분산네트워크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테러조직은 조직원들끼리 한 곳에 모여 훈련과 테러기법 전수 받고, 성전주의 의식 교육받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오지에 숨겨져 있는 훈련 캠프로 모일 필요가 없어졌다. 이들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공간을 모병(recruitment), 교육 및 훈련(education and training), 테러 기법(terror tactics) 전수, 자금 모금(financing) 및 통신연락(communication)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이 테러리스트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면서 국제 사회가 직면하는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들의 핵심 대상이 되는 서방 국가들조차 2014년 6월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가 출현한 이후로 강도와 빈도를 높이고 있는 극단 무슬림 테러주의자(jihadist)의 개별 테러에 대한 대책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소위 ‘외로운 늑대’로 분류되는 이러한 개별 테러가 이들 국가의 테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통계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점차 서방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실정이다[53]. 지난 2015년 1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풍자 잡지 샤흐리 에브도에 대한 테

러공격으로 12명이 난사당한 사건에 대해 주미 프랑스 대사 Gerard Araud는 “이번 사건은 프랑스가 공격당한 것이 아니다. 프랑스는 서구 민주주의를 상징하여 공격받은 것이며, 이러한 공격은 유럽뿐 아니라, 미국 또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불행한 현실이다”라고 한 바 있다[15].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청소년 ‘김 모’(18세)군이 2015년 1월초 터키와 시리아를 경유하여 이슬람국가(IS)로 자진 가담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이슬람 테러조직에 대한 우리사회의 경각심을 높여 주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이슬람 테러가 그동안 유례가 없었던 캐나다, 덴마크에서도 발생하는 등 세계화 추세에 있고, 소규모 형태를 띠면서도 광범위한 인명과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극단적 폭력행태를 보이는 가운데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의 영향력이 국내 청소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우리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외로운 늑대’ 테러활동이 조직 단위로 이루어지거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독의 ‘lone wolf’ 또는 소수가 결합된 ‘lone wolf pact’ 형태로 자행되고 있어 그 해결 방안을 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2014년 12월 시드니에서 이란 출신 이슬람교도 만 하룬 모니스가 일으킨 인질사건과 프랑스 샤흐리 에브도 테러 사건은 서구사회에 번져나가고 있는 개인 테러범에 의한 “작은 규모, 단독 범행” 테러의 경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19].

본 논문에서는 최근 세계 전 지역에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확산되고 있으나, 워낙 개인적으로 이루어져 사전 정보수집이나 단서

확보가 쉽지 않아 예방이 어려운 '외로운 늑대'(Lone Wolf) 테러에 대하여 김 모 군(이하 '김 군'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사건을 중심으로 외국 사례와 함께 사이버 상에서의 실태와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발생 가능성을 추론하고, 발전적인 정책개발 방향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미국은 2004년 외사정보감시법(FISA)를 개정하여 'lone wolf'를 PATRIOT Act,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 및 외사정보감시법의 규율 대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전자통신보호법(ECPA)상 감시 대상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기본 법안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테러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상태이고, 과거에 발생했던 대부분의 사건도 범행의 동기나 배경, 사회적 파급력 등 개인 또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형사법으로 일괄 의율하고 있다. 사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lone wolf'와 법규 공백이 그 이유라고 본다. 테러행위를 범죄로 의율 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없기 때문에 주한 미 대사의 피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형 집행기관의 수사행위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일반 형사법으로 의율할 수밖에 없다. 다만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국내 학자들의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하여 미국·영국 등에서 알 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계 또는 관련이 있는 '외로운 늑대' 관련 논문을 주로 참조하였으며, 김 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발표 자료와 국내외 언론 보도,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로 하였으며, 담당 수사관 및 전문가와 직접 또는 이메일 면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외로운

늑대' 테러를 빈번하게 경험한 주요 국가의 논문과 김 군 사건과 관련한 담당관 면담·사건 자료 열람 등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외로운 늑대'가 어떤 경로로 외부 테러세력과 연결되어 과격 테러리스트로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행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이미 연구된 '외로운 늑대' 테러리스트 진화모델을 연구하여 필자의 독자모델로 정리한 후 김 군 사건을 분석해 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외로운 늑대' 발생 가능성을 살펴 본 후 이에 대한 정책적 착안사항을 발굴해 보기로 한다.

본 논문은 제2장('외로운 늑대'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서 정의와 함께 생성동기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제3장(외로운 늑대와 인터넷 공간)에서는 테러활동에 있어서 인터넷의 효율성과 인터넷을 활용한 테러단체와의 연계실태에 대해 선행 논문과 사례를 통해 살펴 본 다음 이를 통해 '사이버상 진화모델'을 생성해 보았다. 이어 제4장(우리나라에서의 외로운 늑대 발생 가능성 연구)에서는 앞 장에서 생성한 '사이버상 진화모델'에 김 군의 IS 가담 과정을 분석해 보았으며,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환경 하에서 '외로운 늑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제5장에서 결론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 2. '외로운 늑대(Lone Wolf)'에 대한 이론적 고찰

### 2.1 '외로운 늑대(Lone Wolf)'의 정의

'외로운 늑대' 테러 범죄는 인간의 역사에서 오래 전부터 발생하여 왔던 일이다. 우리나라

도 유구한 역사를 통해 장보고(신라), 정몽주(고려), 김중서(조선), 민비(대한제국) 등의 많은 지도자와 당대의 주요한 인물들이 분명한 배경이나 뚜렷한 이유 없이 자객이나 흉한에 의해 암살 또는 척살된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나 국가의 작용에 장애를 주기 위해 범죄를 단독으로 자행되는 테러리스트를 흔히 ‘외로운 늑대(lone wolf)’라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호칭은 학자에 따라 ‘외로운 범죈자(lone actor)’, ‘외로운 파이터(lone fighter)’, ‘외로운 늑대조(lone wolf pact)’, ‘외로운 공격자(lone attacker or lone offender)’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12]. 본 논문에서는 논리의 전개에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으면 ‘외로운 늑대(lone wolf)’로 통일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테러연구단체인 반비방연맹(Anti-Defamation League)에 따르면 “배후 조직이나 연계 인물이 없는 자생적 테러리스트라”는 의미로 ‘외로운 늑대(lone wolf)’란 용어가 최초로 사회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은 1990년대 미국에서 활동한 극우 인종주의자 Alex Curtis라는 인물로,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이끌면서 조직원들에게 정보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지 않으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책으로 “집단에 의존하지 말고 ‘외로운 늑대’처럼 독자적으로 활동할 것”을 주문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외로운 늑대(lone wolf)’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Pantucci[41]는 이슬람 극단주의 핵심 세력의 지휘통제를 받는 개인 테러리스트를 ‘lone attacker’로 정의하고, 이슬람 근본주의를 자처하더라도 테러단체와 아무런 연계가 없는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를 ‘lone actor’, ‘loner’, ‘lone wolf’, ‘lone wolf pack’라고 구분하면서,

그 중 ‘외로운 늑대’와 동일한 개념으로 ‘단독 범죈자(lone actor)’를 “범죈조직의 이념이나 그 활동을 지지하여 폭력 활동을 자행 또는 준비하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단독 또는 2명이 수행하는 테러행위를 말하며, 외부의 범죈조직과는 단절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사실상 테러활동에 가담하고 있는 극단주의자와 어느 정도 접촉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정의한다. 이 정의는 알 카에다 또는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세력의 조직원에 의한 단독 테러행위와 조직적 연계없이 활동하는 ‘외로운 늑대’ 테러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공모자가 있는 범죈까지 확대[5]하여 ‘1명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범죈’라는 ‘외로운 늑대’에 대한 종래의 정의를 2명까지 확대시키는 등 보다 유연한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의 정의는 또한 인터넷을 통해 조직에 속한 극단주의자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그는 이러한 분류가 ‘외로운 늑대(lone wolf)’와 단독으로 행하는 일반 형사범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가령, 1995년 4월 오콜라호마 시청을 폭파한 Timothy McVeigh는 “미국사회가 자신을 경멸하고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소외감과 절망감이 범죈의 원인이라고 자백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 이념이나 신념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사회적 불만이나 불평등, 정부정책에 대한 반감 등을 이유로 하는 사건의 경우 ‘lone actor’, ‘loner’, ‘lone wolf’의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게 된다. Spaaij[46]는 ‘외로운 늑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i) 단독으로 활동하며 ii) 조직적 테러단체에 속하지 않지만 그러한 단체들의

활동목표에 동조하거나 공유의식을 가지고 있고, iii) 활동방식이 은밀하며 외부의 지시·지침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Spaaij의 정의는 '외로운 늑대'를 조직이나 국가가 자행하는 테러활동으로부터 구분하지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외로운 늑대'에 대한 정의는 테러범행 각 단계 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어 정책 결정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으며, 사법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범행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을 용이하게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테러리즘을 연구하고 있는 Hamm은 Spaaij의 정의를 계승하여 '외로운 늑대'를 "i) 정부나 테러조직의 지원이나 도움이 없이, ii) 지휘조직으로부터 활동지침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iii) 독자적으로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방법을 연구하여, iv) 외부 인물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자"로 정의[16]하여, 조직테러와 구분을 하고 있다. 또한, Hamm과 Spaaij[17]는 '외로운 늑대' 테러를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개인이; 테러 단체나 네트워크에 가담하지 않으면서; 지도자나 지휘체계상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고 활동하며; 외부로부터 어떤 지휘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테러 전략과 방법을 구상하여 정치적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구체화 시켜 정의하고 있다.

국내학자로는 한희원[18]이 "외로운 늑대란 국제 테러조직에의 편무적 또는 자발적 동조자로, 테러조직의 지휘체계와는 무관하게 테러조직의 활동을 외곽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자생적인 테러분자"로 정의하면서 "고독한 투사(lone-wolf fighter), 유령조직원(phantom cell),

지도자 없는 저항세력(leaderless resistance), 비밀조직 요원(covert cell) 등을 같은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정의 역시 Pantucci[41] 경우와 같이, '조직에 편무 또는 자발적 동조를 하지 않는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남기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로운 늑대(lone wolf)'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학계를 비롯하여 사법적으로도 유권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다양한 정의와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에 나타난 '테러(terror)' 정의를 결합시켜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상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어떤 조직과 직접 연계는 하지 않고 있으나, 조직의 급진 이념에 심적으로 영합하면서 독자적으로 테러를 계획, 자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한다.

## 2.2 '외로운 늑대'의 생성 동기

'외로운 늑대'에 관해 연구해 온 많은 학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외로운 늑대'의 생성 동기는 좌절(frustration)과 분노(anger) 및 억울함(grievance)을 들고 있다. Fishman과 Lebovich[13]는 "개인이 급진 의식화 되는 것은 주로 자기 자신과 언론 보도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에 좌우"되는데, 이는 "'외로운 늑대'가 개인의 좌절과 분노를 정치적·사회적·종교적 억울함과 결합시켜 신념을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Moskalenko와 McCauley는 대부분의 '외로운 늑대'가 자신이나 사회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이를 개인 또는 정치적 ‘억울함’과 연결시키게 된다고 설명한다[38]. 예를 들어 1995년 4월 오를라호마 시청을 폭파 테러범 Timothy McVeigh는 “미국은 독재 정권으로 그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 봐야 소용없다”는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Unabomber’로 잘 알려진 Theodore Kaczinski는 “기술의 진보로 말미암아 자연환경과 인간성이 모두 말살되고 있다며, 이러한 것을 조장하는 사회는 마땅히 파괴되어야 한다”는 개인화된 신념을 사회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테러를 자행하였던 것이다[20].

두 번째로 나타나는 동기는 ‘스스로 확립한 급진 의식화된 신념(radicalized ideology)’을 들 수 있다. Spaaij[47]에 따르면 ‘외로운 늑대’ 테러 행위는 백인 우월주의(White Supremacy), 이슬람주의(Islamism), 국수주의 및 인종차별주의(Nationalism/Sepe 그리고 낙태반대주의(Anti-Abortionism) 등이 이념적 배경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외로운 늑대’ 테러범은 자신의 좌절감이나 증오심을 광범위한 정치적, 사회적 또는 종교적 목적과 결합시켜 자신의 테러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극단성향 조직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과거에 이들 단체와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80% 이상은 정신적 질환이나 자아 도취성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46].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1년 7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Behring Breivik이 저지른 총격 테러사건 직후 “증오적 신념을 가진 테러범 한명이 수많은 희생을 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33].

세 번째 동기는 결손가정 · 성적학대 · 가정

폭력 등 문제가정으로 인해 많은 경우에 있어 ‘정신병리학적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외로운 늑대’ 중에는 종종 고등교육까지 이수하고 모자라지 않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린 시절 또는 성장과정에서 심각한 가정결함이 있었거나, 성적 학대를 받았던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기에 형성된 이러한 충격은 사회적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외부인과 접촉을 회피하면서 폐쇄성을 생장시키는 정신적인 장애로 나타나고 폭력성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0].

Pantucci[42]는 ‘외로운 늑대’의 상당수는 “실업자에 전과기록이 있는 백인남성이고, 일반 범죄자들에 비해 나이가 많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제 테러범으로 검거되어 처벌을 받았거나 처벌 중에 있는 인물들을 면담하여 개인이 급진성향 형성 단계를 거쳐 테러리스트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추출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Spaaij[46]도 Pantucci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외로운 늑대’ 테러범 5명 중 4명이 개인적인 정신혼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테러범과 직접 면담을 통해서 얻어내었다[42].

마지막으로 ‘외로운 늑대’의 동기가 되는 것은 심리적으로 ‘동경하거나 동조’하는 과격단체의 두드러지는 활동 또는 선전홍보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이다. 2010년 초 알 카에다 아라비아 반도지부(AQAP) 온라인 홍보잡지인 ‘Inspire’ 영문판이 2009년 11월 미국 텍사스 포트후드 육군기지에서 13명을 무차별 살

해한 총격 테러범 Nidal Hasan을 칭송하면서 “앞으로 조직보다 개인의 성전주의 테러전략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하였고, 이 후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 이슬람 추종 테러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6]. 자신의 신념이나 도덕적 정의에 부합하는 단체를 찾아내어 스스로 연계를 시도하고, 연계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동 조직의 이념과 목표에 자신을 동화시켜 나가게 된다. 사회적 정체성에 따라 개인은 자신과 유사한 대상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범주화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45]. 이슬람 성전주의·인종차별주의·국수주의 애국 단체·이념단체를 추종하는 ‘외로운 늑대’가 ‘조직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테러’가 이에 해당한다. 노르웨이 오슬로 테러범 Andres Brevik은 어떤 단체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반이슬람주의를 추종·수용하며, 사회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테러를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류에 해당한다[38].

### 3. ‘외로운 늑대(lone wolf)’와 인터넷 공간

#### 3.1 테러활동에 있어서 인터넷의 효용성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활용성은 인간생활의 편의성을 증대시켜 주고 있으며, 테러리스트들에게도 인터넷의 이러한 다양한 속성은 어떠한 방법보다 포기하기 힘든 활용의 장이 되고 있다. ‘외로운 늑대’ 테러리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은

첫째, 이념전달의 자동성과 과급성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선전수단이다. 사이버 공간은

특정한 내용이나 정보자료를 신속하게 지역이나 국경에 관계없이 무제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수 있다[54]. ‘외로운 늑대’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테러의 이념과 정당성 주장을 수용하고 ‘급진 의식화(radicalization)’ 된다. 알 카에다 반도지부(AQAP) 홍보지인 ‘Insider’는 ‘국내 자생’ 테러리스트나 ‘외로운 늑대’에게 이념화와 모병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14]. 최근 이슬람국가(IS)는 al-Hayat 미디어센터를 설립하고 첨단 디지털 기법과 유튜브·페이스북 등 SNS 매체를 활용하여 소외감에 시달리던 서구 이슬람 청소년 3,000여 명을 불러들이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0].

둘째, 인터넷은 뛰어난 보안성을 가지고 있다. 보안은 범죄·테러조직이 정보기관의 추적을 피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확산시키기 위해서, 또는 사법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인터넷은 본질적으로 독자적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익명성(anonymity)을 수단으로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은 저비용 고효율성의 활동환경을 제공한다. 인터넷은 다른 통신수단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정보를 무결점 상태로 상대방과 송·수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Bergen과 Hoffman[4]은 테러범죄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한 결과를 토대로 ‘외로운 늑대’ 테러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라는 경제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테러라고 하였다. 비용이나 시간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적시에 테러를 감행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20].

넷째, 인터넷은 맞춤형 통신과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하다. 이는 의도한 상대방에게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통신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SNS 공간에서는 자신이 아는 지인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들이게 되어 전달효과가 매우 크게 된다[49]. 보안성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대상에게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조직의 영속성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웹 2.0 시대의 도래로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개방·공유·참여를 통해 쌍방향성으로 진화시킴과 동시에 음성·문자의 소비시대에서 영상·UCC 등 정보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장성을 높이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다섯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침투 및 공격에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가 있다. 대상 정보기반 시설에 은밀히 접근하여 상대방(국가)의 기밀정보를 절취하거나, 인터넷으로 치밀하게 연결된 사회 중요시설을 무력화시켜 국가기능마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격수단이 된다.

여섯째, 인터넷은 정보수집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통신·신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밀활동, 즉 COMINT(통신공작)와 기술을 이용한 기술공작(TECHINT)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넘쳐나는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고급정보를 양산해 내는 공개정보공작(OSINT)의 전장으로서 기능도 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활용함으로써 테러 수행능력을 한층 신장[9]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서구사회와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의도하는 많은 것들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

### 3.2 과격 폭력화 진행

학자들은 앞으로 소규모 테러 또는 ‘외로운 늑대’의 단독 테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4]. 다발적 소규모 테러가 여론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정치적 선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전략 수립을 위해 장시간을 투자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인터넷에 널려 있는 간단한 매뉴얼과 활동요령, 필요 장비를 손쉽게 구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Hoffman[21]은 알 카에다의 새로운 전략이 “개인 테러리스트에게 용기와 정의로운 동기를 심어주어 어떠한 지휘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폭력적 테러행위를 완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2011년 1월 알 카에다 홍보잡지 ‘Inspire’에는 영국 국회의원 Steven Timms를 살해하려 했던 여성 테러리스트 Roshonara Choudhry의 행위를 ‘세계를 감동을 던진 멋진 행동’이라고 영웅화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이는 또 다른 테러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알 카에다가 ‘외로운 늑대’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자신들의 투쟁목표와 결합시키려는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한편, Pantucci[42]는 ‘외로운 늑대’ 테러범은 자신이 가진 신념을 아주 쉽게 테러조직이 가진 투쟁목표나 이념과 결합시키려 한다고 주장한다. Pantucci의 주장이 이슬람 극단주의 ‘외로운 늑대’ 테러리스트의 경우에는 합당할 수도 있으나, 여타 자생 단독 테러리스트의 사례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테러조직과 ‘외로운 늑대’ 테러리스트가 테러에 대한 신념이나 동기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두 세

력이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연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테러조직과 '외로운 늑대'간 연결고리는 직접 대면이나 중계역할을 하는 인간을 통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촉이 가능한 인터넷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사이버공간에서 폭력성을 키우고, 폭발물 제조 방법을 익히거나 살해 기법을 전수받고, 테러활동에 대한 정의감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52]. 예컨대, 알 카에다 선전지 'Inspire'는 서방세계의 '외로운 늑대'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자극하고, 폭약 구입과 제조기술을 전수하는 등 실질적인 과격 급진화를 유도하고 있다[48]. 이러한 급진 의식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게 되고 비로소 '영혼의 안식처'를 찾았다는 안도감을 가지게 되면서 이념과 사상을 공유하고, 연계 수준을 높여가면서 과격 폭력화되어 간다[42].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사이버상의 외로운 늑대에 대해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급진 의식화과정을 거쳐 테러리스트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 3.3 외로운 늑대의 '사이버 진화 모델' 연구

#### 3.3.1 은둔형 외톨이(Secluded Alone) 단계

Spaaij[47]는 대부분의 '외로운 늑대'가 "타인과 어울리기 보다는 혼자 생활"하면서 외부 세계와 의사교환을 말보다 글을 써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그 주제도 폭력성 있는 내용으로 제한을 받는다고 하였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혐오감이나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며, 극단성향 단체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통

해서 사회적·정치적 극단성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외로운 늑대' 가운데 극단적인 이념(ideology)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좌절감 또는 증오심을 가슴에 담고 있는 자아도취성 병증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고 독특한 성격이 표출되어 직장이나 단체에서 인위적인 배척을 당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주변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형성하게 되어 점점 고립 또는 은둔적인 생활을 심화시키게 된다. Moskalenko와 McCauley [37]는 '외로운 늑대'가 가족·직장 등과 같은 일상생활 주변의 관심과 주의로부터 멀어져 외톨이 생활을 하는 과정을 '해동'(unfrozen)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 3.3.2 정체성 교체(Shifting Identity) 단계

사이버공간에서 얻는 지식이나 경험을 통하여 자신에게 맞는 '사이버 우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자존감을 상실하고 주변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인터넷 서핑에 심취하게 된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걸고 사회나 가족들과의 접촉이나 대화를 차단하게 되는 경향이 가속화하여, 실물공간에서 자아를 점점 상실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자아를 찾아 나서게 된다. Jasparr[22]는 "외로운 테러범 10명 중 9명은 '외톨이'이며, 10명 모두 커다란 인생위기를 경험하였고, 그중 7명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적어도 6명은 정신적 질환으로 고생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테러리스트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열등감 등에서 비롯되는 격리 단계를 거쳐 직업도 버리고 테러활동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7]. 1997년 6월 발생한 오클라호마 시청 폭파범 Timothy McVeigh도 자아도취

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사회와 접촉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48].

### 3.3.3 자발적 급진 의식화 학습(Voluntary Radicalization Persuasion) 단계

급진 의식화(radicalization)는 본인의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길 들여지게 되며, ‘의식화 학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단체에 속한 조직원과 달리 ‘외로운 늑대’는 외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의식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의식화는 다소 변칙성을 갖게 되며 지식이나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는 없지만, 자기학습을 통해 스스로 동경하고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충성심은 단체 내부 조직원들보다 훨씬 강고하고 탄탄하게 형성이 된다. 그것은 학습 행위가 강요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자의에 따른 것으로 맹목성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변질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Pantucci[42]는 배후 또는 연계조직이 도덕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외로운 늑대’에게 테러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계기가 주어졌을 때 폭력 테러를 스스로 자행할 수 있는 준비상태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치적·사회적·종교적으로 급진화(radicalization)하는 이념학습(ideological persuasion)을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3.3.4 ‘잠자는 늑대’(Sleeping ‘lone wolf’) 단계

‘테러이행 준비단계(Preparation Stage)’라고도 할 수 있으며, 외형상으로는 고도의 합법적으로 위장하고 결행을 준비하는 단계로,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수사기

관의 추적을 받기가 쉬운 단계이다. 모든 생활을 합법적으로 하면서 테러대상 물색, 기법선정 및 동원 장비를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이 단계에서는 CCTV, 협조자 등으로 인해 범행의 예비단서를 유류하는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차명폰, 공중전화, 무기명 카드폰, 인터넷상 각종 암호화 기법 등 다양한 통신상 보안수단을 강구하고, 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음어사용도 체화시키게 된다. 또한, 결정적 시기(critical opportunity)에 대비하여 현장 실사와 사전 정찰을 통해 방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과 동시에 지형을 충분히 익히고, 예행연습으로 실제 현장에서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게 된다.

### 3.3.5 테러실행(Terroring Stage) 단계

‘외로운 늑대’의 경우, 정의의 폭력(violence)을 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외로운 늑대’ 테러는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결되어 서구의 편향된 정책으로 무슬림이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복수의 일환으로 폭력행위를 자행하고, 이를 ‘신의 계시’, ‘신의 전사’라며 ‘도덕적 정의감(moral justification)’에 따른 행동임을 주장한다[3].

Likar[29]는 테러범들은 사회가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한 분노를 해소하고자 하는 이기심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이를 허무주의적 행동이라고 하였다. 폭력행위를 통해 자신의 분노와 정치적 주장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가장 중요하며, 흔히 주장하는 종교차별, 인종차별, 반정부 인식 등은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심리학자인 Zimbardo(2004)는 '외로운 늑대'가 외부 테러조직의 폭력적 활동으로부터 자극받게 되는 요소로 집단사고(groupthink)를 중시하고 있다. 그는 테러행위로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한 정의감이 집단용인 또는 종교적 정당성으로 감정이입이 되어 모든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불식시키고, 오히려 "정의를 위해 불의를 차단한다"는 환상적 입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58]. Moskalenko와 McCauley [38] 역시 "'외로운 늑대'는 도덕적 정의감을 가지고 테러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적 현상을 징벌하는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5년 1월 파리에서 풍자만평으로 유명한 '샤를리 에브도'사를 공격한 Said Kouachi가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위대하다)"를 외치면서 무차별 살상은 저지른 행위도 이들이 '신의 전쟁' 또는 '신을 위한 성전'(jihad)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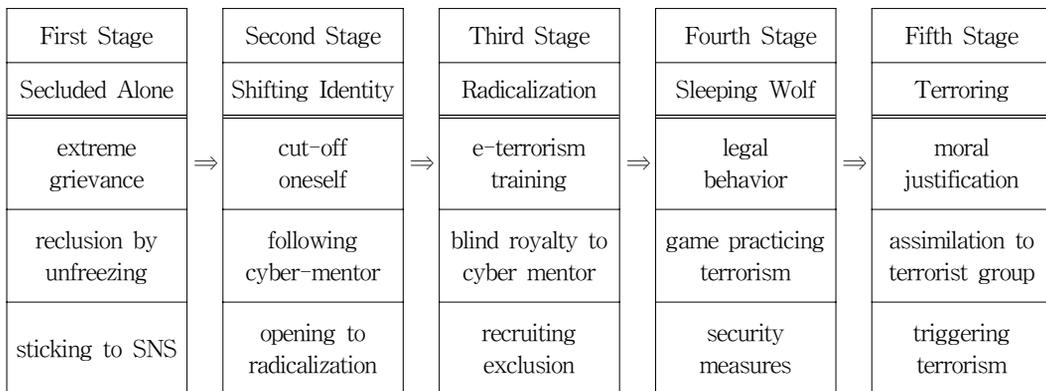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 본 '외로운 늑대'가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진화하는 단계를 정리하면 <Figure 1>과 같은 "'외로운 늑대'의 사이버 진화모델"로 나타낼 수 있다.

### 3.4 '사이버 진화 모델'로 살펴 본 '김 군'의 행적

#### 3.4.1 사이버 '은둔형 외톨이' 단계

2015년 1월 10일 무장 이슬람혁명세력인 이슬람국가(IS)로 자진해서 들어간 것으로 판단(경찰 발표)되는 김 군(17세)은 중학교를 자퇴하고 홈스쿨링을 하며 집에서만 생활해 왔다. 그는 초등학교 재학시 급우들로부터 폭행과 따돌림을 당해 고통을 받으면서 주변과 어울리지 않고 가족들과 메모지로 소통하였다고 한다. 그는 3살 어린 남동생과 많은 통화를 하였지만, 속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했다고 한다. 그의 컴퓨터 기록에는 '반드시 죽여할 인물'로 급우 A군과 자신과 아주 가까운 가족 등 2명을 꼽고 있었다고 한다. A군은 신체적 강함을 내세워 김 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사실이 있다하며, 가족 중 1명이 복수 대상이 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그가 보인 태도는 앞서 살펴보았던 Fishman과 Lebovich[13]가 주장한 "개인의 좌절과 분노가 사회적 억울함과 결합"된 것으로 볼 수



<Figure 1> Cyber Evolution Model of a Lone Wolf

있으며, Spaaij[46]의 “타인과 어울리기 보다는 혼자 생활”하면서 외부세계와 글로 의사교환을 하는 행태로, Moskalenko와 McCauley[37]의 ‘해동’(unfrozen)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3.4.2 ‘사이버 우상’을 통한 정체성 교체

김 군은 2013년 1월 수니파 이슬람전사를 뜻하는 ‘sunni mujahideen’으로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이슬람과 접촉을 시도 하였다. 2014년 3월에 “IS 가입” 의사를 처음으로 트윗하였고, 같은 해 9월 초부터 이슬람국가(IS)의 사이버 모집책 추정 ‘habdou5038’라는 계정 인물과 상호 트윗을 주고받았다. 2014년 11월부터는 보안성이 높은 ‘surespot’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컴퓨터에서 이슬람과 관련된 즐겨찾기(65개), 사진(40여 매)과 다수의 검색기록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 그는 외부와 접촉 없이 정체성 교체 단계에서 보여주는 ‘사이버 우상’을 찾고 있었을 것이며, 얼굴을 가리고 총으로 무장한 강인하게 보이는 이슬람 지하디스트가 이를 충족시켜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Jaspardo[22]가 주장한 ‘외톨이’의 모습으로 외부와 접촉을 하지 않고 사회에 대해 복수할 방안을 찾고 있었던 점은 오콜라호마 시청 폭파범 Timothy McVeigh가 보여준 행태와 아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 3.4.3 이슬람 개종 후 급진 의식화 진행

김 군은 자신의 컴퓨터에 “이슬람교는 모두가 평등하다. 개종하고 나서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라고 기록하였다고 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Pantucci[42]의 급진 의식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게 되고 비로소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 안도감을 가지게 되면서 이념과 사상을 공유하고, 연계 수준을 높여가면서 과격 폭력화되어 간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그가 스스로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많은 이슬람 사이트를 찾아 종교를 공부하고, 지하드(jihad)를 연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시기 그는 이슬람교에 심취하며 다양한 학습을 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 3.4.4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IS에 가담

‘잠자는 늑대’의 특성은 합법화를 가장한 테러준비 행위로 나타난다. 김 군의 이러한 행위는 “친구를 만나러 터키에 간다”, “갔다 와서 열심히 공부 하겠다”며 부모를 안심시키는 행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시기가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식별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가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더라면 그의 의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아쉽다. 그리고 그는 주변에서 전혀 낯새를 차리지 못한 가운데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담에 성공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테러실행’은 그의 이슬람 국가 가담과 그 이후 테러리스트로 교육 훈련 등이 해당하겠으나, 아직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므로 분석을 생략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 군은 스스로 이슬람을 추종하여 그들의 테러 이념과 목적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에 대한 증오·원한, 검정고시 연속 실패에 따른 좌절감 등으로 주변과 단절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안락함을 얻고 그들의 교리와

활동(테러) 목표를 받아들인 진행과정이 '외로운 늑대'의 사이버 진화모델'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인터넷과 트위터·페이스·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가 이슬람교 개종 및 교리 학습, 이슬람국가(IS)와 연결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 4. 우리나라에서의 '외로운 늑대' 발생 가능성 연구

##### 4.1 서론

우리는 앞에서 '외로운 늑대' 테러를 기본 축으로 하여 생성동기와 인터넷의 효용성을 살펴본 데 이어, 사이버 공간에서 '외로운 늑대'가 5개의 진화단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IS에 가담한 김 군의 경우에 적용시켜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이버 공간이 '외로운 늑대'의 진화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환경과 가입자 수, 스마트폰 보유율(2014년 7월 기준,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는 4,112만 명, 인터넷 이용률 83.6%, 스마트폰 보유율은 84.1%이다)[27]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고립·이탈을 심화시키거나 모방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은 알 카에다 반도지부(AQAP)와 연결된 프랑스 국적 이슬람세력의 불만이 폭력적 형태로 나타난 '외로운 늑대' 테러사건으로,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프랑스 정부가 인구의 약 10%에 달하는 무슬

림 사회를 동화시키고 평등한 대우를 목적으로 제정한 '부르카 금지법'이 오히려 종교적 박해·탄압 논란으로 비화되었고, 샤를리 에브도사의 이슬람 풍자만화 게재를 계기로 비극적 '문화적 충돌'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8]. 이슬람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이 물질적·정신적으로 피폐하고 동화되지 못한 이주 무슬림들의 극단적 행동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렇다 할 만한 극단 폭력테러를 겪지는 않았으나, 그 위험성은 늘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북한 체제의 불안 지속과 이슬람권 출신자의 증가 및 민감한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사회 불만자의 돌출행동 등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50]. 아래에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외로운 늑대' 테러 발생 요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4.2 '외로운 늑대' 발생 가능 요인

###### 4.2.1 사회구성의 다양화에 따른 요인

###### 4.2.1.1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우리나라의 다문화 이행은 대부분 혼인, 직장의 형태로 유입되고 있다. 국제결혼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13년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은 5만 5천여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 하는 추세이다[28]. 다문화 학생들은 차별과 놀림, 괴롭힘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위축되는 문제점을 보이며 다수가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어 사회차원에서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0]. 이들은 몇몇하게 "나도 한국인"임을 외칠 수 있는 온라인에 심취될 가능성

이 높아 인터넷 중독율이 일반 가정의 세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4].

이와 함께 2013년 말 현재 취업·공연 등을 목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157만 6천명의 외국인도 다문화 사회를 촉진하는 요소이다. 이들은 중국 국적자 78만 여명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불법 체류자는 18만 3천여 명으로 추산된다[34]. 이들은 국내의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56],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과 높은 범죄율 등으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문화에 동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며 처우 불만, 차별대우, 부당하고 등 불만에 따른 돌출적인 폭력행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권에서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자(600여 명)가 정통 무슬림이나 근로자로 위장하여 국내로 잠입 후 테러자금 모금·IS 가담 선동이나 사회 기간시설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50]. 특히 우리나라 무슬림은 동남아에서부터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출신지역이 다양하여[1], 해당 지역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등이 정통 이슬람 교도로 신분을 위장하여 침투를 기도할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4.2.1.2 북한이탈 주민의 동화

북한 이탈주민은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 사정이 가장 악화될 시기를 계기로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10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1,396명이 입국하여 현재까지 총 2만 7,500여 명이 입국하였다.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을 추월하여 현재 전체 70%

를 상회하고 있다[36].

북한 이탈주민은 앞으로도 남북관계의 변화나 북한체제의 변동과 관계없이 분단이 극복되는 시점까지 항상 지속될 수밖에 없는 민족적 상수이다. 이들은 외형상 북한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대한민국 국적자가 된다. 이들의 탈북 동기는 일인독재를 피하고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한 것에서 부터 최근에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먼저 탈북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더 나은 교육기회를 찾아서, 북한 지도자가 싫어서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외에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35]. 이들은 반세기 이상 분단되었던 남북간의 정치·사상·문화의 이질성과 균열을 치유하고 동질성을 유도하여 통일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적자산으로, 정치·사회·경제 등 제 방면에서 우리와 함께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동화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들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을 대남테러를 위한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검거한 북한 간첩(49명) 가운데 탈북자로 위장 침투하였다가 검거된 사례가 21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에는 보수단체 대표 살해 지령을 받고 독약·독침·독총을 가지고 잠입하는가 하면, 전문 공작과정을 이수한 전투원이 주요 탈북자를 살해 지령을 받고 침투한 사례도 발각되었다. 한편, 국내 정착 탈북자가 북한으로 재입북하여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체제선전에 동원된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 이탈 주민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공통된 삶과 권리를 영위하여야 할 대상이

지만, 북한은 이러한 공간마저 테러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 4.2.2 우리사회의 내부갈등에 따른 요인

##### 4.2.2.1 좌·우 극단 이념의 대립

흔히 우리사회를 이념적 스펙트럼이 매우 큰 사회라고 한다. 이는 곧 좌·우 진영간 분열과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갈등이 지속된다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념이나 신념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다른 이념은 철저하게 배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여타 종교를 종교로 인정하지 않고 '배신자'라고 규정하며 "이를 타도하여 없애 버리는 것이 성전(jihad)"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사상적으로 북한을 추종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우파로 분류되는 계층은 "꼴통 보수"임과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가 된다. 반대로 극단적 애국주의 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북한 주장에 경도되는 경향이 곧 "빨갱이"이고 "간첩"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Danny Davis[11]는 이러한 범주의 테러리스트들은 "시민 권력이 정의를 심판하는데 실패할 경우 신이 자신들에게 심판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위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2014년 12월 전북 신동성당 토크 콘서트 현장에 사제 폭발성 물건을 투척한 사건이 대상 장소가 민간인들이 참석하는 집회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외로운 늑대'형 테러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15년 3월 무방비의 주한 미 대사에게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무장 폭력을 행사한 행위 역시 '외로운 늑대' 테러임이 분명하다. 전자는 우리나라의 보수우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자는 반대로 좌익성향

세력에 의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좌·우 진영 간 골간의 깊이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일회성 경과성이 아니라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북한을 추종하거나 비호, 동조하는 세력이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국가체제와 정부기반 무력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54].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 대남혁명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북한의 주의 주장을 거름 없이 수용하여 확고한 종북 이념으로 무장한 이들은 계기가 조성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와 사회를 대상으로 폭력적 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준비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종북 세력의 규모는 북한과 직접 연계되어 지령을 받거나 노선을 수행하는 핵심전위 세력(단체)이 30여 개, 북한 노선을 선전·선동하는 추종단체 160여 개, 북한 입장을 추종하는 심정적 우호단체·조직·모임은 1,500여 개로 파악[2]되며, 세력규모로 핵심세력 3만여 명, 동조세력 30~50만 명, 부동세력 300여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특히, 북한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사이버 심리전과 함께 현안 발생시 종북 세력을 대상으로 공개지령을 하달하고 있는 현실[54]에서 종북 세력들의 사이버 동향은 주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 4.2.2.2 SNS 등을 활용한 종북 사조 확산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는 안보 위해세력들은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선전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북한 통일선전부가 중국·일본 등에서 직영하는 「반제민전」

웹사이트인 '구국전선'과 『조평통』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및 '려명', 김일성 종합대학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강당' 등에 북한이 게시한 주체사상, 김일성·김정일 선집, '노동신문' 등에서 북한원전이나 자료들을 '핍'하여 국내 인터넷에서 중복 사조를 확산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주로 유튜브와 트위터에 개설된 북한 계정에서 중복 문건을 열람, 확산시키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2011년 이후 중복 네티즌들이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등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북한의 3대 세습을 찬양하고 적화통일을 지지하는 등 활동타 적발된 사례가 다수 있으며, 최근에는 유튜브와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 개설된 북한 사이트를 추종하고 있다.

#### 4.2.2.3 방황하는 청소년 문제

2015년 1월 김 군의 IS가담 소식이 알려진 후 그의 트위터 팔로워 숫자는 하루만에 100여명에서 440여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 중에는 김 군과 접선했던 IS 모집책에게 쪽지를 보내거나 “나도 IS에 가입하고 싶다”고 트윗한 사례까지 발견되었다[51]. 특히, 자신을 '16세 한국남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세상이 싫다. IS에 가담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내용을 수차 트윗하기도 하였다[24].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습 장애, 불우 환경, 학교 폭력,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전체 학생의 1.0%에 이르며,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북한 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적응자 대부분은 인터넷 중독, 자살충동, 가출 등 불건전한 환경으로 편입되는 경향을 보였다[23]. 이들의 약 9%는 비행 또는 범죄의 세계로

빠지는 경우로 관측되고 있다[55]. 특히, 청소년의 정신장애(mental disorder) 발생 증가율이 연 100%를 상회[43]하고 있으며, 2013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인한 진료 환자 수 66%가 10대 환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7].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없을 경우 결국 이들을 반기는 것은 사이버공간이 될 수도 있다.

#### 4.2.3 소결론: 우리사회의 '외로운 늑대' 발생 가능성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이민·귀화 등으로 다문화 사회로 급속 이동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환경 등으로 국제화·정보화·다원화가 매우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유동 인구 증가와 함께, 해외 테러단체 구성원이나 훈련된 '외로운 늑대' 테러리스트의 국내 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주민 1세대뿐 아니라 2·3세대의 경우 교육·정치·종교 전반에 걸쳐 자기 정체성의 혼란, 주류사회와의 충돌 등으로 우리의 정규사회로 동화하지 못할 경우 사회 문제화 될 소지도 크다[30]. 특히 우리나라 무슬림의 경우 동남아에서 북 아프리카 지역에서 다양한 교파가 들어와 있어, 알 카에다나 이슬람국가(IS) 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의 침투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2만여 명을 넘어서는 불법체류 무슬림은 철저한 동향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1995년 당시 알 카에다 테러세력이 우리나라를 출발하는 미국 항공기를 납치, 공중 폭파시키는 테러계획까지 세웠다가 실패한 사례[6, 31] 등으로 볼 때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한 테

러 가능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3만여 명에 육박하는 북한 이탈주민 가운데서도 철저한 사상교육과 무장훈련을 받은 테러 분자가 잠입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관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국내 정착생활에 비교적 높은 만족도(67.6%)를 보이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월 평균 141만 원), 체제 부적응으로 인한 불만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9].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여러 요인도 '외로운 늑대' 생성 동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으로 비행 청소년이 줄어들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터넷 문화와 스마트폰 확산은 인터넷 중독과 같은 신종 사회병을 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성을 떨어뜨리고 폭력·쾌락 지향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켜 준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이나 사회제도에 부적응하는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공간,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 테러를 찬양하고 미화하는 극단주의 테러집단에 유입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김 군** 사례가 이미 보여 주었다. 극단주의 테러세력의 인터넷 활동을 제한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현 상황에서 불안·증오·좌절을 일시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 2, 제 3의 **김 군**이 나타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김 군** 사건이 보도된 후 그의 트윗 계정 팔로워가 대폭 증가하고, 심지어 그와 접촉한 이슬람국가(IS) 모집책과 접촉하는 사례 보도[26]로 보아 그러한 가능성은 잠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중북 세력도 자생 '외로운 늑대'화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 의한 직접적인 유입 가능성도 있지만, 대한

민국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는 분별없는 행태[25]로 볼 때 이들이 사회불안과 남남 갈등 조성을 넘어 '외로운 늑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고 주의주장이나 공개·반공개 지령을 쫓아 어떤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집단이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발달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외로운 늑대' 테러리스트가 생성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고 있다. 더구나 발전된 사이버환경은 '외로운 늑대'가 싹을 틔우고 자라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리사회가 불안해지고 모순과 대립이 심화되어 간다면 '외로운 늑대'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세대 간·계층 간·지역 간·이념 간 갈등의 간극이 깊어지고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지 못하면 제 2, 제 3의 **김 군**이 탄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하겠다. 특히, 소셜 미디어 공간을 통한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집단의 유혹과 공세가 더욱 확산되고 있어, 분별없는 청소년에 의한 모방테러, 추종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와 정치적·종교적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이슬람 과격주의 테러 등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알 카에다 세력이 비행기 폭파나 교통시스템을 공격하여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대형 테러에 치중하여 온 것과 달리, 최근 이슬람 테러를 주도하는 이슬람국가(IS) 세력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1~2명으로 조직된 ‘외로운 늑대’를 동원하여 동시 다발적 ‘묻지마 테러’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자유’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이들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외로운 늑대’ 테러를 선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사회 불만자의 돌출 행동이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외로운 늑대’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포착하여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여야 할 무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 직후 서방 국가 지도자들이 파리에 모여 이를 규탄하고 강력한 공동대응을 천명한 바와 같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연결된 ‘외로운 늑대’ 테러는 세계 각국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12].

우리사회는 국제결혼·이민·귀화자 뿐 아니라 노동이주 및 연간 6천만 명이 넘는 해외출입자 등으로 급속하게 다문화·다양화·국제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남녀갈등, 이념갈등, 세대 간 갈등에서 비롯되는 대립과 분열의 심화는 우리사회에서 ‘외로운 늑대’의 생성 동인을 키워주고 있다.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세력 확대를 도모하고 이슬람 테러를 ‘성전’으로 미화, 정당성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어,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쉽게 유혹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 발생한 김 군의 이슬람국가(IS) 진입은 우리 내부의 ‘외로운 늑대’ 잠재 세력을 일깨우는 촉매로

작용하는 등 어느 때보다 우리사회에서 ‘외로운 늑대’가 생성되고, 이로써 유발되는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사이버 공간서 테러발생 동인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외로운 늑대’ 발생 가능성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전에 이를 예방·저지하고, 이와 같은 테러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관련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테러방지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한다. 테러방지법은 미국이 9/11 폭파테러 사건으로 유사 이래 전무후무한 인적·물적 피해를 목격한 전 세계 국가들이 앞 다투어 제정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거의 매년 정부안 또는 국회 입법안으로 상정하여 제정을 논의해 오고 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위협에 대응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사이버안보법(가칭) 제정도 필요하다. 만약 테러가 발생한다면 정보통신 인프라와 함께 국민의 안전한 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여 사전에 테러를 예방하고, 인터넷 공간을 통한 폭력 테러 기도를 색출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사 분란하고 효과적인 국가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다문화 사회로 이행과 내부의 갈등과정에 잠재해 있으면서 예측이 불가능한 ‘외로운 늑대’ 테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간 정보공유와 통합대응 체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유관 정부부서와 정보·수사기관 이 합동으로

잠재적 '외로운 늑대' 목록(black list)을 정리하고, 언제든지 해당인물에 대한 동향정보 파악이 가능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테러발생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개인에 대한 동향감시 논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를 최소화하고 동향정보 수집 방안을 투명하게 수립하여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감시프로그램의 작동이 원활하도록 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해당 기관이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손질하여 잠재적 '외로운 늑대'의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외로운 늑대' 테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폭력화하고 학습하는 환경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합법적인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으로 위장하여 침투하는 북한 테러범이나 정통 이슬람교도를 가장한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세력의 잠입 가능성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색출과 동향 감시를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테러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국제통합 기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제협약 등을 통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외로운 늑대'는 물론 모든 테러는 강한 결집력과 목적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자폭정신'을 무기로 하고 있어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연쇄적·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외로운 늑대' 테러는 진화된 정보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국제 연계활동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테러가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국제 범죄적인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비록 테러의 주된 대상은 아니지만, 국제기구와 공조를 활성화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국내 테러 발생에도 대비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외로운 늑대'의 발생 원인과 특성, 우리 사회에서의 발생 가능성에 이어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법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외로운 늑대' 테러로 볼 만한 사건으로 막대한 국가 재산이나 대량의 인명살상이 발생한 전례가 별무하여 정부나 학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제이나, 최근 서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 또는 극단적인 좌·우 이념으로 무장한 테러가 확산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연구와 대비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연구는 '외로운 늑대',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의 발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국내 테러발생 실태나 테러 사범에 대한 수사기법, 테러사건이 빈발하는 미국 등 국외의 관련 법제와 대응 실태 등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외로운 늑대' 테러는 조직적인 배경이 없는 단독 범 형태로 사전 탐지를 통한 예방이 매우 어려우며 사후 증거확보도 곤란하기 때문에, 정부(수사당국)의 의지와 함께 학계의 관련 연구, 시민사회·국민들의 의식제고가 필수적임에도 이를 전반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소셜 미디어

어를 통해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이념과 신념을 공유하면서 과격화 양상을 보이는 급진적 식화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결과를 내어오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이 분단 현실에서 언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극좌·극우 집단테러와 극단적 이슬람 테러 등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가칭)과 사이버 안보형사법(가칭) 제정을 유인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도움자료가 되는 한편, 미비한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여 더욱 알차고 내용 있는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 References

---

- [1] Ahn, J., "The Present Condition and Social Network of the Southeast Asian Muslim Immigrants," *Korean Journal of the Middle East Studies*, Vol. 29, No. 1, p. 68, 2007.
- [2] Bang, S., "Pro-North Korean Groups, Core 30, Follower 160, Friendly 1500: Core Groups Carry out the orders from the North. Follower Groups cause Demonstration Agitation," *Munhwa Ilbo*, www.kild.or.kr/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104, 2015.
- [3] Bates, R. A., "Dancing With Wolves: Today's Lone Wolf Terrorists," *The Journal of Public and Professional Sociology*, Vol. 4, No. 1, p. 7, 2012.
- [4] Bergen, B. and Hoffman, B., "Assessing the Terrorist Threat," *Bipartisan Policy Center's National Security Preparedness Group*, p. 26, 2010.
- [5] Berlet, C., "Lone wolf Terrorism In Charleston, Paris and Boston," *Dissent News Wire*, www.defendingdissent.org/now/news/lone-wolf-terrorism-in-paris-and-boston, 2015.
- [6] Bonner, R. and Welser, B., "Echoes of Early Design to Use Chemicals to Blow Up Airlines," *The New York Times*, www.nytimes.com/2006/08/11/world/europe/11manila.html?\_r=0, 2006.
- [7] Borum, R. M., "Psychology of Terrorism," *University of South Florida*, p. 27, 2004.
- [8] Cassidy, J., "Fighting Jihad: France must avoid Repeating America's Errors," *The New Yorker*, www.newyorker.com/news/john-cassidy/fighting-jihad-france-shouldnt-repeat-u-s-error, 2015.
- [9] Choo, S., "e-terrorism: Terrorism Web sites and Internet Terrorism," *Strategy Forum*, Vol. 5, p. 2, 2006.
- [10] Cohen, K., "Who will be a lone wolf terrorist?: Mechanisms of self-radicalisation and the possibility of detecting lone offender threats on the Internet," *FOI*, p. 12, 2012.
- [11] Davis, D., "The Phineas priesthood: Violent vanguard of the Christian identity movement," *Praeger*, Santa Barbara, California, p. 5, 2010.
- [12] Edwards, C., Jeffery, C., and Pantucci,

- R., "Out of Reach? The Role of Community Policing in Preventing Terrorism in Canada," Royal United Service Institute Occasional Paper, pp. 9-10, 2015.
- [13] Fishman, B. and Lebovich, A., "Countering Domestic Radicalization: Lessons for Intelligence Collection and Community Outreach," National Security Studies Program Policies Paper, New American Foundation, p. 41, 2011.
- [14] Fredholm, M., "Hunting Lone-Wolves-Finding Islamist Lone Actors Before They Strike," Stockholm Seminar, p. 6, 2011.
- [15] Hallen, N., "Charlie Hebdo Shootings: Worldwide marches from London to Washington in solidarity with France," ABC news, [www.abc.net.au/news/2015-01-12/worldwide-marches-solidarity-with-france-charlie-hebdo-victims/6012164](http://www.abc.net.au/news/2015-01-12/worldwide-marches-solidarity-with-france-charlie-hebdo-victims/6012164), 2015.
- [16] Hamm, M. S., "Lone wolf Terrorism in America: Forging a New Way of Looking at an Old Problem," Indiana University, p. 3, 2013.
- [17] Hamm, M. S. and Spaaij, R., "Lone Wolf Terrorism: Using Knowledge of Radicalization Pathways to Forge Prevention Strategies," U.S. Department of Justice, 2015.
- [18] Han, H., "A National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Policy-An In-depth Study on the NCTC of the U.S.A.," Counterterrorism Research Journal, Vol. 8, pp. 554-555, 2012.
- [19] Henry Jackson Society, "Sydney siege: The West faces growing threat of 'small scale, lone wolf' terrorism,"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www.ibtimes.co.uk/sydney-siege-west-faces-growing-threat-small-scale-lone-wolf-terrorism-1479570](http://www.ibtimes.co.uk/sydney-siege-west-faces-growing-threat-small-scale-lone-wolf-terrorism-1479570), 2015.
- [20] Hileary, C., "What motivates the Lone Wolf Terrorist?," Voice of America, 2013.
- [21] Hoffman, B., "The Fort Hood Killer: Terrified ... or Terrorist?," Time, 2009.
- [22] Jaspardo, C., "Lone Wolf: The Threat from Independent Jihadists," Jane's Intelligence Review, pp. 3-4, 2010.
- [23] Jeon, G., "What are the Solutions for Dropout Teenagers?," Gyeonggido Family and Women's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 Vol. 44, p. 3, 2012.
- [24] KBS, "Kim, who disappeared in Turkey, Followers Increase..., Blocking 'IS' related Articles," KBS NEWS 9, news.kbs.co.kr/news/view.do?ncd=3007189, 2015.
- [25] Kim, H., "Who is Pro-North Korean Internet Club Administrator Mr. Hwang? Who cried out Kim Jeongil Hooray in the court," The Chosun ilbo,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06/2011080600483.html, 2011.
- [26] Kim, K., Sim, J., and Kim, S., " 'Glad to meet you' 'I want to join the IS' Kim's Twitter Followers are Increasing," The Kyunghyang Shinmun,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12210225&code=940202, 2015.
- [27]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KISA),

- “Survey on the Internet Usage 2014,”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KISA, pp. 23-45, 2014.
- [28]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and Korean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Students of Multicultural era,” 2013.
- [29] Likar, L., *Eco-warriors, Nihilist Terrorists, and The Environment*, Praeger, Santa Barbara, California, 2011.
- [30] Lee, H., “Terrorist March of IS, How should we Perceive?,” Samsung Tomorrow, [samsungtomorrow.com](http://samsungtomorrow.com), 2015.
- [31] Lee, M., “Al-Qaeda’s plan for ‘Seoul version 9.11 Terrorism,’” Chogabje.com, [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58099&C\\_CC=BC](http://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58099&C_CC=BC), 2014.
- [32] Lee, S., “A Survey on the Maladjustment of Students in School and a Proposal to Improve Their Self-Esteem,” *Journal of Human Completion*, Vol. 1, pp. 12-13, 2009.
- [33] Makuch, B., “The Psychology of a ‘Lone Wolf’ Terrorist,” MOTHERBOARD, [motherboard.vice.com/read/what-is-a-lone-wolf-terrorist](http://motherboard.vice.com/read/what-is-a-lone-wolf-terrorist), 2014.
- [34] Ministry of Justice and Korea Immigration Service, *Statistical Yearbook of Immigration*, 2013.
- [35] Ministry of Unificati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North Korean Integration,”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p. 2, 2013.
- [36] Ministry of Unification, “Policy towards North Korean Defectors,” Ministry of Unification, [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 [37] Moskalenko, S. and McCauley, C., “Mechanisms of Political Radicalization: Pathways toward Terrorism,”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Vol. 20, p. 422, 2008.
- [38] Moskalenko, S. and McCauley, C., “The Psychology of Lone-Wolf Terrorism,”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Vol. 24, No. 2, pp. 120-122, pp. 420-422, 2011.
- [39] No, J., “67.6% of Defectors are Satisfied with Life in South Korea,” *Radio Free Asia*, [www.rfa.org/korean/in\\_focus/ne-nj-02092015090817.html](http://www.rfa.org/korean/in_focus/ne-nj-02092015090817.html), 2015.
- [40] Oh, I., “Relations between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Problems among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 Focus on Mediation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5, No. 4, pp. 231-233, 2014.
- [41] Pantucci, R., “A Typology of Lone Wolves: Preliminary analysis of Lone Islamist Terrorists,” ICSR, 2011.
- [42] Pantucci, R., “What Have We Learned about Lone Wolves from Anders Behring Breivik?,” *Perspectives on Terrorism*, Vol. 5, No. 6, pp. 7-12, 2011.
- [43] Park, H., “The Sorrows of the Mentally Ill. No Investment and No Consideration,” *Modern Health News*, [www.hnews.kr/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28420&code=20110207145315\\_9064&s\\_code=20110207150058\\_0398](http://www.hnews.kr/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28420&code=20110207145315_9064&s_code=20110207150058_0398)

- &ds\_code=, 2015.
- [44] Park, J., "Multicultural Children, Game Addiction Rate 3 times more... I'm Korean only in the games," The Chosun Ilbo,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07/2012020700135.html, 2012.
- [45] Park, T., Kim, S., Jang, J.,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Share the Information Security Knowledge on SNS(Social Network Services),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20, No. 1, pp. 6-7, 2015.
- [46] Spaaij, R., "Understanding Lone Wolf Terrorism: Global Patterns, Motivations and Prevention," Springer, London, New York; Springer, p. 5, 2012.
- [47] Spaaij, R., "What makes a 'lone wolf' terrorists?," La Trobe News, La Trobe University, pp. 1-8, 2011.
- [48] Springer, N. R., "Patterns of Radicalization: Identifying the Makers and Warning Signs of Domestic Wolf Terrorists in Our Midst," pp. 13-24, 2009.
- [49] Suh, B. and Park, J., The Impact of Opinion Leadership on the Attitude Change by the Direction of Word-of-Mouth under the Online Social Networking Service Environment,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18 No. 2, p. 4, 2013.
- [50] 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 "2014 Terrorism Report," pp. 8-11, 2015.
- [51] Um, B. and Kwon, S., "Hassan, the one Kim aid to meet, Appears in the List of Executives of the IS Turkey Branch," The Chosun Ilbo,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1/2015012104267.html, 2015.
- [52]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2008.
- [53] Weimann, G., "Lone Wolves in Cyberspace," Journal of Terrorism Research, Vol. 3, No. 2, 2012.
- [54] Yoo, D., Cyberspace and National Security, Book and People, Seoul, p. 39, pp. 12-13, pp. 92-94, 2012.
- [55] Yoon, G., Yoo, S., Kim, S., and Lim, J., A Longitudinal Survey and Support Plan for Dropout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eoul, pp. 205-207, 2013.
- [56] Yoon, I., Song, B., Kim, S., Song, J., and Song, Y., "The Migrant Workers' Influence to the Korean Economy, Society and the Koreans' Perception on the Migrant Workers," Asian Human Rights Center, pp. 109-111, 2009.
- [57] Yoon, S., "Tic Disorder, ADHD, Relaxation of the Brain is Necessary," Naeil Shinmun, m.naeil.com/m\_news\_view.php?id\_art=150124, 2015.
- [58] Zimbardo, P., "Lucifer Effect: Investigating Social Dynamics(ch.12)," Penguin Random House, 2007.

저 자 소 개



윤봉한  
 1987년  
 1997년  
 2008년  
 1987년~2015년  
 2004년~2008년  
 현재  
 관심분야

(E-mail: unacorea@daum.net)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국가공무원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소셜 네트워크 분석, 사이버보안(공격), 정보법학



이상진  
 1987년  
 1989년  
 1994년  
 1989년~1999년  
 1999년~현재  
 2013년~현재  
 관심분야

(E-mail: sangjin@korea.ac.kr)  
 고려대학교 수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수학과 (이학석사)  
 고려대학교 수학과 (이학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회장  
 디지털 포렌식



임종인  
 1980년  
 1982년  
 1986년  
 1986년~2001년  
 2001년~2015년  
 현재  
 관심분야

(E-mail: jilim@korea.ac.kr)  
 고려대학교 수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수학과 (이학석사)  
 고려대학교 수학과 (이학박사)  
 고려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정교수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원장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위원장  
 금융보안연구원 보안전문기술위원회 위원장  
 안전행정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협의회 운영위원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 이사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정보정책, 정보법학, 디지털포렌식, 개인정보보호, 전자정부  
 보안, 융합기술보안 등